



정교회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필로테이 수녀순교자

탕자 주일

성 뽀필로스 순교자

성 니콜라이카잔스키 일본 대주교

제2조, 조과복음 2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2조 부활 찬양송 / 81. A 212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순교자 찬양송 / 84. 265

· 성당 찬양송

· 탕자 주일 시기송 / 220. B 270

· 사도경: 1고린토 6,12-20 / 봉독서 418

· 복음경: 루가 15,11-32 / 133. B 86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필로테이 수녀순교자

예전 초대교회 시대 때만 순교자들과 수도자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래에도 그리고 오늘날 그리고 시간이 다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교회에 순교자들과 수도자들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 대한 믿음의 삶이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가 터키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기에 아테네에 '수도자의 삶' 살다가 순교

하신 필로테이 성녀(1522~1588)가 사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2월 19일에 성 필로테이 수녀순교자를 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녀는 과부가 되셨고, 지금 현재 아테네 대교구청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수도원을 세워서 고아들과 학대받는 소녀들을 모으고 돌봐주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언급하고 요빠의 다비타(그리스말로 도르가)라는 여신도(사도행전 9:36~43)의 여성의 성스러운 활동을 상기시켜줍니다.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삶의 시작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부터이다. 이전의 나의 잘못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를 갖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기 전 나의 모습에서 백팔십도 변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영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영적 삶의 모습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어야 하지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언제나 죄를 짓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회개를 해야 한다. 회개의 뜻은 ‘생각을 바꿈’ 또는 ‘사건의 변화’를 의미한다. 회개를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병 환자 열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주님으로부터 육적인 치료는 물론 영적인 치료를 받았듯이, 잘못만이 아닌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지은 뿌리 깊은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죄의 사함을 받도록 진심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진심 어린 회개의 자세는 기도를 통해서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한 것에 대한 후회와 슬픔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고 각오하며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것이다. 정교인으로 세례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진심어린 회개만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다시 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회개는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회개의 절실함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며 크나큰 은총의 선물이다.

회개는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서 자신이 바른 사람인 것처럼 교만하여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과는 반대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여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해준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회개의 길은 끝이 없다. 회개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멈추었을 때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영적 죽음을 맞게 하고 그와 같이 영원한 지옥의 세계로 빠지게 한다.

성 요한 클리막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회개는 세례의 연장이 되어 우리를 거둬 나게 하며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시켜 줍니다.” 회개는 세례를 받음으로 얻게 되는 은총의 열매이다. 성령께서는 회개를 통하여 인간의 마음 속 깊이 은총의 선물을 주셔서 마음을 변화시켜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게 해 준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병든 인간이 치료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회개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지만 바른 삶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세례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큰 은총과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해서 천국의 문을 열고 구원을 받게 해준다.

▶ 알렉산드로스 한의중 신부

잘못이나 실수를 하십니까?

(디오니시오스 탐파키스 신부)

잘못을 저지르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사람이십니다!

오직 죽은 자와 돌들만이 잘못을 하지 않죠.

하지만 잘못으로 인해 회개를 하게 되고, 겸손해지며, 성숙하게 되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관용을 배우게 된다면, 그때 그 잘못은 꽃으로 변하게 됩니다. 인간의 잘못은 가공되지 않고 예측할 수 없으나 노래를 아름답게 장식하기도 하는 스케르초(scherzo, 해학곡) 같은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붉은색의 양귀비꽃 같은 것으로서 녹색으로 뒤덮인 대초원의 따분함을 누그러뜨려 줍니다.

나는 자신의 삶에서 작은 실수나 잘못도 두려워하며 한 점 흠 없이 살아온 사람이 결국에는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러서 큰 혼란에 빠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결점이 없는 사람은 또한 아스팔트 도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생명이 없고 매정하기 그지없는 완벽주의로 덧칠한 듯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완벽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한 완벽함을 하느님 앞에서 겸손으로 부숴 버림으로써 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 아타나시아



소 식

대교구

■ 한국정교회 120주년 기념 행사 연기 결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매일 추가 확진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사람들의 건강 또한 지켜야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도 그 동안 준비해 왔던 120주년 기념 행사를 연기하기로 하는 어려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120주년 기념 행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상황이 나아지면 나중에 실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퍼지지 않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병자들이 속히 완쾌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영혼 토요일

2월 22일 토요일은 영혼 토요일입니다. 성찬예배와 함께 우리 교회의 모든 선조들을 기념하는 추도식이 거행됩니다. 풀리바를 준비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트리오디온 기간을 잘 보냅시다

트리오디온 기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대사순절을 영적으로 잘 보내는 방법 중 한 가지는 예배에 참여하면서 또한 정교회출판사에서 출간한 ‘대사순절’, ‘성 에프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대사순절과 부활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권의 영적 독서를 통해 영적으로 더욱 의미 있게 대사순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 가평 주 변모 수도원 주변 부지 매입 결정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의 주차장에서 강 쪽으로 약 500평에 대해 땅 주인이 수도원에 방문하여 매각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혹시 나중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수도원과 대교구에서는 이 땅의 구입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매입 가격은 1억 원입니다. 신자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간 예식 · 2월 17일(월) 한국의 첫 번째 성찬예배 기념일, 성 테오도로스 대순교자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 2월 22일(토) 영혼 토요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추도식